

OECD-SUNY Conference 참석

- 조진환 연구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장 개요

- 출장지: 미국 뉴욕, The SUNY Global Center
- 출장기간: 2012년 4월 10일~4월 15일
- 출장자: 최희선(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조진환(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2. 출장 목적

- 2012년도 기획과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OECD-SUNY Conference 참석
- Conference Title : Conference on Internalization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 Increasing Coherence of Government and System Policies at a time of Global Crisis

3. 출장 주요내용

(1) OECD conference 배경

- 대학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성공적인 경험, 실패사례, 혁신사례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로 특히 대학교육 글로벌화를 국가 및 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접근하였음.
- OECD Directorate for Education, Institutional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IMHE) 와 SUNY 공동 주최

(2) 참석 주요 Session 내용

Session 1: Linkages between internation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in MENA

- MENA는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약자로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를 지칭함.
- 더 나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위해 MENA의 청년층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중이며, 이것이 고등교육으로 증가로 이어져 왔음.
 - 2008년 기준으로 프랑스(30%), 영국(9%), 독일(6%) 등의 지리적으로 근접한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11%)에서도 MENA의 학생들이 수학중임.
 - MENA 학생들의 교육은 경영학, 공학, 영어에 집중되어 있음.
 - 모로코, 이란, 알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의 유학비율이 특히 높으며, 이들이 모든 MENA학생의 40%를 차지함.
 - MENA국가들 내에서의 그들 간 학생유학도 상당히 높으며, 이들

은 주로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세 국가에서 수학함.

- 2009년 기준으로 약 160여개의 고등교육을 위한 MENA 국가들의 해외캠퍼스가 운영중이며,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설립되었음.
- MENA 국가 내 및 외부 국가간 유학생의 비율 증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MENA는 판단함.
 - 국제학생으로부터의 고등교육수입이 늘어남. 다른 나라의 한 예로,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제학생의 수학교가 공공 고등교육기관 수입의 15%를 차지하였음.
 - 정부 및 사설 장학금을 통해 국가 간 금전적 교류가 커지며, 이와 관련한 자금들이 유학국가에서 흐르게 되면 경제발전을 도움.
 - 국제학생들은 연구개발을 좀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함.
- MENA 국가 내 및 외부 국가간 유학생의 비율 증가는 인재유출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
 -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재는 더 나은 근무환경과 임금을 제공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MENA국가로 돌아와 사업을 창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MENA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화된 인재들이 자국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시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중임.

Session 2: The Aerospace Malaysia Innovation Center (AMIC) : Geof Tomlinson, Univ of Sheffield, UK

- 셰필드 대학교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 부문 UK 3위 대학교이며,

120여개 국가와 산학협력관계에 있음.

○ 셰필드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진은 보잉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2002년부터 AMRC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셰필드 대학교와 보잉사와의 산학협력 모델은 기업주도의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AMRC는 보잉사와의 협력 초기에 설립되었고 우주항공재료 가공 분야임. 최근에는 항공기제조, 복합물질, 조립, 핵엔지니어링, 구조테스트 등에 관련된 연구센터가 추가로 설립되었음.

- 2002년에는 교수 1명과 셰필드 지역 중소기업 기술자 1명이 구성원이었으나, 현재에는 200여명의 스태프 및 60백만달러 이상을 집행하는 연구소. 연구소는 도제제도 및 박사과정생의 교육훈련 등도 담당

○ The Aerospace Malaysia Innovation Center (AMIC) 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획한 기업 주도 산학관협력 사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 주도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말레이시아 산업발전 및 대학 연구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였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산학협력의 선도 대학교로 셰필드 대학교 AMRC를 선택.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셰필드 대학교 동 연구소가 10여년전부터 보잉과 산학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이오 연료 부분에 대한 연구 및 공급을 통해 항공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말레이시아 대학 및 산업의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유럽 및 미국의 대학을 찾고 있었으며, 이에 셰필드 대학교 AMRC센터를 선택.

- AMRC는 영국 산학관협력의 성공사례이며 말레이시아는 이 사례를 채택한 것
- AMIC의 목적은 지역산업 발전 및 말레이시아 항공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시키는 것 등.
 - 이를 위해 동 센터는 R&T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력양성, 대학 등 아카데미 파트너에 대하여 연구개발 방향 조언, 산업 및 대학이 필요로하는 인력의 매칭 소개 등을 수행
 - AMIC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R&D 프로젝트 스타트업 펀드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글로벌 항공산업 기업인 프랑스 EADS 등이 투자함으로써, 산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결과가 세계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 (리딩 인더스트리는 EADS, 롤스로이스, CTRM 등)

(3) SUNY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배경

- 뉴욕주립대(SUNY)의 뉴욕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국제화 드라이브
- 뉴욕주립대의 위상
 - 뉴욕주립대(SUNY)는 미국내 가장 규모가 큰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며, 알바니, 빙햄턴, 버팔로, 스톤브룩 등에 소재한 주요 연구중심 대학을 포함하여 64개 교육기관, 46만명의 학생, 8만명의 교직원, 세계각국에 퍼져있는 240만명의 졸업생을 보유
 - 총 18,800명의 외국인 학생(2009-2010) 중 한국 학생은 2,720명으로 중국 2,950명에 이어 2위
- 뉴욕주립대와 뉴욕주 경제

- 총 졸업생(2009-2010) 중 63,700명이 뉴욕주에 일자리를 찾았음.

Communications, SW and Media Services 1,320

Financial Services 6,340

Front Office 11,390

IT services 3,880

Management 7,270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17,150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14,460

- SUNY는 국제화된 교육 서비스로 교육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 많은 외국인학생을 유치하여 SUNY 및 주정부 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일부 산업에 SUNY로부터 교육받은 외국인 노동력 (주로 독일과 학생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유치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 및 세계적인 인재를 뉴욕주 산업에 공급하고 있음.

-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이어 second-level 정부이지만, 연방정부 이상으로 주 내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기관임.

○ 뉴욕주립대의 교육 국제화 드라이브

- 뉴욕주립대는 (1) 인재 (2) 수출 (3) R&D (4) 이민 등을 뉴욕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네가지 핵심 자산으로 간주

- 인재의 관점에서는 국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하며, 지역내에서 지역 인재를 발굴. 특히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업계 동향 혹은 산업수요와 괴리가 컸다는 관점에서, SUNY는 교과과정을 산업수요에 맞추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SUNY 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강한 글로벌화 드라이브를 갖고 있

고, 이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리드하는 측면이 있으며 간혹 연방정부로부터의 우려·조언을 듣고 있음.

- 뉴욕은 미국에서 교육 및 금융의 중심지이며, SUNY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립된 글로벌화된 교육서비스산업의 모델임.
- 미국 특히 뉴욕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되어 종업원수가 급감하고 있는 제조업을 재활성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보다, 전세계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서비스산업 즉, 대학교육산업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것.
- SUNY는 상하이 등에 학위수여 없는 비학위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였으며, 향후 국제적으로 이와같은 형태의 교육훈련기관 설치를 확대할 예정. 이를 통하여 교수요원, 스태프 등의 고급인력의 해외일자리 창출 및 해외로부터 투자수입 확대

○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네트워크

- 주내 주요 연구중심대학이 강력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그 자체가 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SUNY의 방대한 네트워크는 뉴욕주의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SUNY의 64개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는 알바니에 본부를 두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SUNY-industry 산학협력 모델은 전형적인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음. 즉, 뉴욕주의 대중소기업은 SUNY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주의 64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와 쉽게 연결할 수 있음.

○ The importance of model setting : emerging industry

- SUNY의 대학교육 글로벌화 및 산학협력 모델은 세계 최초의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특히 SUNY의 교육국제화 모형은 교육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음.
- 교육은 파트너십에 기초한 오랜 시간을 통한 막대한 투자, 불확실성, 시장 부재 등이 그 특징이었지만 교육서비스산업 발전과 함께 그 모델이 달라지고 있음.